

Multi Asset Strategy

두각 (頭角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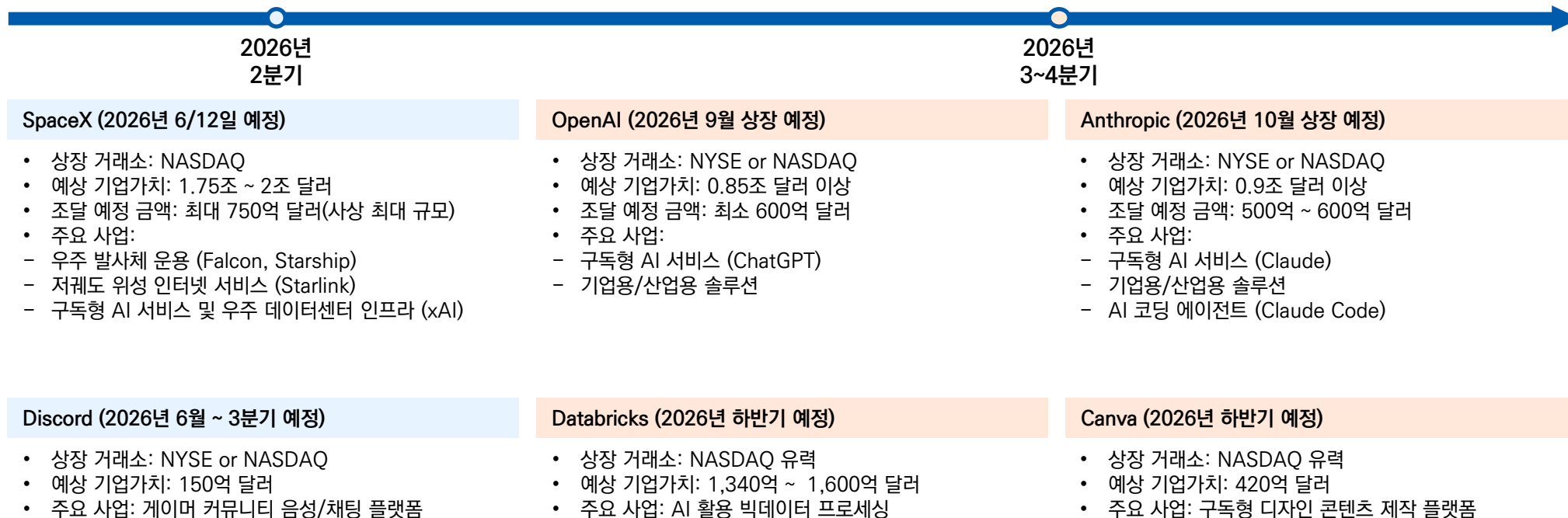
SpaceX · OpenAI · Anthropic,
초대형 IPO의 주식시장 영향





SpaceX·OpenAI·Anthropic 등 초대형 IPO 카운트다운 돌입

- SpaceX·OpenAI·Anthropic 등 글로벌/미국 AI 및 우주 항공 관련 No.1 기업들의 초대형 IPO가 카운트다운에 돌입
- 1) 6/12일 SpaceX가 NASDAQ에 상장 예정. IPO 금액은 사상 최대 규모인 750억\$에 달할 전망이며, 예상 기업가치는 2조\$ 이상으로 추정
- 2) 2~3Q Discord 상장 예정. 기업가치는 150억\$ 추정. 하반기 Databricks(기업가치 1,600억\$ 추정)와 Canva(기업가치 420억\$ 추정)가 상장 예정
- 3) 9월 중 OpenAI가 상장 예정. IPO 예정 금액은 최소 600억\$ 이상이며 예상 기업가치는 0.85조\$ 이상으로 추정
- 4) 10월 Anthropic이 상장 예정. IPO 금액은 600억\$이며 예상 기업가치는 0.9조\$ 이상으로 추정





초대형 IPO 영향은 기존 AI 대표주 수급 구축효과보단 낙수효과 형태로 발현될 것

- 시장 일각에선 초대형 IPO가 기존 AI 밸류체인 대표주에 대한 수급/유동성 블랙홀 유발과 증시 조정 및 버블 붕괴의 트리거가 될 것이란 우려를 제기
- 종전 AI 밸류체인 대표주에 집중됐던 이목과 수급력은 IPO 직후 SpaceX, OpenAI, Anthropic 등으로 상당 수준 분산될 개연성이 높은 것은 사실
- 단, 1) SpaceX, OpenAI, Anthropic 등의 하반기 IPO 대상 기업은 미래 혁신기술 및 AI 혁명 관련 글로벌/미국 No.1 대표 기업이며, 2) 수급력 이동은 구축효과가 아닌 AI 밸류체인 내 기업간 옥석 가리기 대체효과 성격이 짙은 바, 증시 조정의 단초로 기능할 가능성은 제한된 가운데, 3) 전 지구적 이목이 집중된 핵심기업의 가세로 글로벌 투자가의 추가 유입 및 종전 AI 밸류체인 대표주로의 수급 낙수효과(종전 대표주 수급 블랙홀 발생시 Bottom-fishing 대기자금 추가 유입) 발현 여지가 보다 클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
- 과거 글로벌 초대형 IPO 이후 상장국 증시 투자성과는 수급 대체/구축효과 관련 부정적 영향보단 시장 광목상대 및 수급 낙수효과 영향이 압도적으로 컸음을 방증

글로벌 초대형 IPO 이후 해당 상장 증시 기간 등락률

구분	IPO 일 (상장 시장)	IPO 규모 (십억 달러)	초대형 IPO 이후 상장 시장 등락률 (%)			
			+3M	+6M	+9M	+12M
Aramco	2019년 12월 11일 (사우디 Tadawul 거래소)	26	-5	-8	0	10
Alibaba	2014년 9월 19일 (뉴욕증권거래소)	22	32	51	119	38
SoftBank	2018년 12월 19일 (도쿄증권거래소)	21	-1	-2	0	10
NTT DOCOMO	1998년 10월 22일 (도쿄증권거래소)	18	-2	17	30	23
Visa	2008년 3월 19일 (뉴욕증권거래소)	18	2	-6	-34	-43
AIA Group	2010년 10월 29일 (홍콩증권거래소)	18	3	-1	-8	-22
Enel	1999년 11월 2일 (밀라노증권거래소)	17	22	36	29	26
Facebook	2012년 5월 18일 (나스닥)	16	8	5	16	25
GM	2010년 11월 18일 (뉴욕증권거래소)	16	13	13	0	7
ICBC	2006년 10월 27일 (상하이 및 홍콩증권거래소)	14	54	102	118	237
Average			13	21	27	31
Median			6	9	8	1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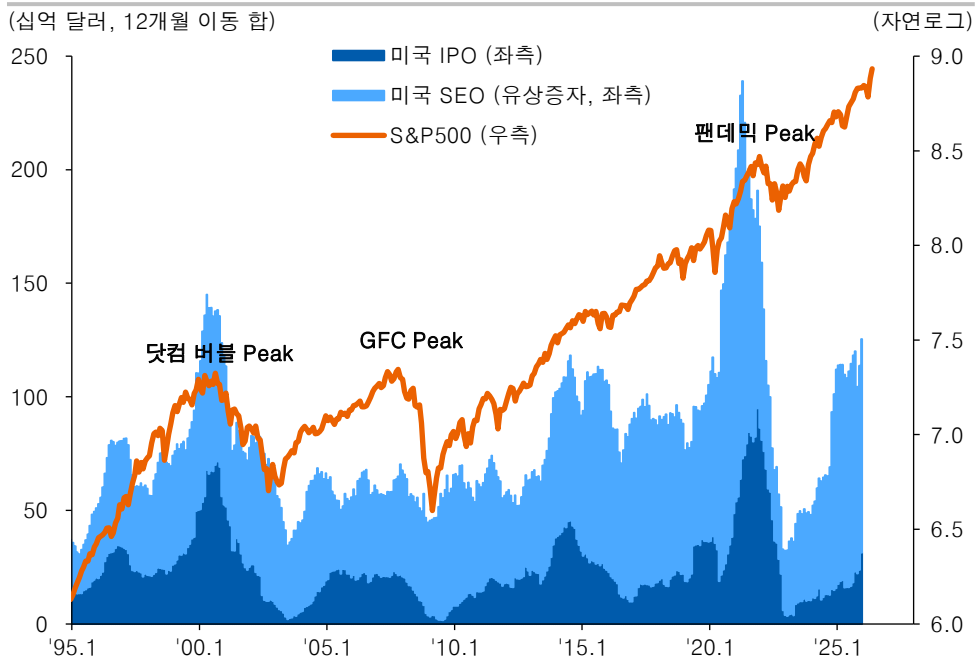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

초대형 IPO를 감당할 유동성과 경제 체력 확보. 연말 S&P500 8천Pt선 안착 가능성에 초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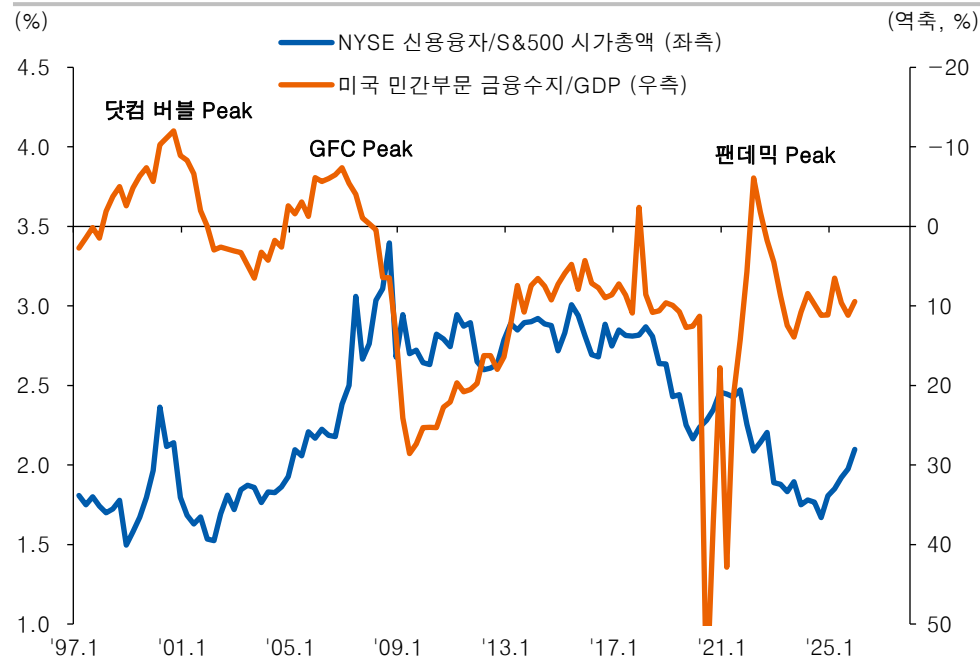
- 통상, 미국 IPO/유상증자 합산 금액(12개월 이동 합 기준)과 S&P500 지수의 고점은 대체로 일치(금융위기 직전엔 비상장 기업의 지분 발행이 급증)
- '25년 12월 말 현재 IPO/유상증자 합산 금액은 1,255억\$로 팬데믹 직전 고점인 2,390억\$과 닷컴 버블 당시 고점인 1,450억\$ 모두를 하회
- SpaceX·OpenAI·Anthropic 합산 IPO 예상액이 2,000억\$에 육박한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, 동 금액은 연말께 사상 최고 수준으로 확대될 소지가 다분
- 관건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유동성과 경제 체력 보유 여부. 1) 현재 미국 신용융자/시가총액 비중은 2.1%로 금융위기 당시 3.4%를 크게 하회하고 있고, 2) 민간 금융수지/명목 GDP 상대비율 역시 현재 +9.4%(순대출)로 -10%(순차입)선에 달했던 과거 증시 버블기 때와는 절대적 격차를 유지
- 하반기 S&P500 지수가 초대형 IPO의 가세에 힘입어 마디 지수대 8천Pt선 안착을 모색하는 역사적 신고가 경신 랠리를 지속할 공산이 크다 보는 이유

미국 IPO 및 유상증자 추이와 S&P500



자료: FRB, LSEG Workspace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NYSE Margin Debt/S&P500 시가총액 및 미국 민간 금융수지/명목 GDP 상대비율



자료: LSEG Workspace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-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. (작성자: 김용구)
-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
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,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.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,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,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 또한,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.